

LAD의 실험적인 5개의 빌라 디자인(VILLAE MINIMAE)...

주변 환경과 장소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된 건축 구조,
자연과 건물 사이의 이분법을 강조해

>> Villae Minimae는 1:200의 스케일로 다섯 개의 독립된 소형 빌라 디자인을 연구 발전시킨 작업이다. 빌라는 두 개 이상의 침실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로 표현되었다. 건축가그룹 LAD는 건축이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순수한 장치이기를 바랬다. 그렇기에 다소 형태는 단순한 기하학적 변형을 기반으로 도발적인 동시에 유토피아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 건물의 왜곡된 형태는 내부공간에서 외부를 바라보기 위한 풍성한 시야 확보를 위한 장치이다. 건물과 자연 사이의 이분법을 강조한 것이다.

빌라 1은 연속된 방금 구조의 접합과 복제 방식을 활용하여 계획한 작업이다. 무엇보다 하늘로 바라보는 풍경과 빌라가 위치한 언덕의 두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의 공간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외관은 석조건축의 파괴와 재건을 포함한다. 빌라 2는 예전 농촌을 배경으로 들어선 부속 건물로 삼각형의 왜곡을 통해 도출하였다.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들은 위로 들어 올리고 서로에게 기대고 있으며 상호 위태로운 균형을 형성하고 있다. 들어 올린 메스를 통해 열린 경관 프레임은 마을, 시골과 숲으로의 풍경을 끌어들이고 있다. 빌라 3은 기존의 도래되고 부패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가상적인 화장을 시도한 것이다. 이 작업은 선형의 건물을 평행 육면체로 왜곡시켜 이끌어 내었다. 해안가의 경사진 암석지형에 적응하기 위해 외관은 굴절한다. 이러한 변화의 각도는 평면과 단면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거실과 침실은 서로 높낮이를 달리하며 정반대 방향의 풍경을 이끌어낸다. 빌라 4는 중앙 안뜰을 가진 사각형의 건물로 출발한다. 모서리 한 지점은 땅을 기반으로 하고 캔탈레버 구조로 뒤틀린 사각형의 건물이 상부로 치솟아 있다. 외벽은 구조적이며 구조의 수직적 움직임은 내부 공간이 빌라 반대쪽 끝의 위로 혹은 아래로의 경관을 다채롭게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거 공간의 상승은 계곡과 바다의 풍경을 다이내믹하게 전해주며 침실은 상승한 주거 공간의 뒤로 산의 풍경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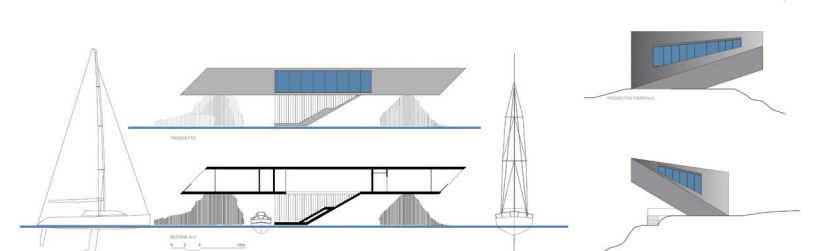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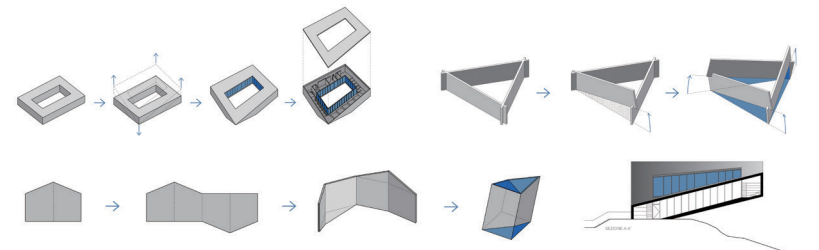
을 제공한다. 빌라 5는 인근의 수영장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위 두 개의 암석을 기반으로 그 위에 자리한다. 동쪽의 바위와 콘크리트 플랫폼 사이의 공간은 작은 모터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거공간에서 대형 창을 통해 식당과 거실 곳곳에서는 주변의 해안과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다섯 개의 서로 다른 빌라 유형들은 서로 다른 지형을 기반으로 주변의 풍경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독특한 주거공간이다.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풍경을 최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다분히 별장형 주택으로의 실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A

양정아 · 김하얀 기자
Francesco Napolitano, Simone Lanaro Partner of LAD
자료 LAD(Laboratorio di Architettura e design)

Villae Minimae(Small Villas) is a collection of five isolated single-family villas that were developed and studied at a 1:200 scale. In all five cases, the projects were designed as 'appendices,' or as additions detached from larger properties but locat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ose project sites. Thus, the villas never contain more than two bedrooms, and interior spaces are minimalistic. Beyond to pure functionality, we were explicitly requested to think of these projects as artifacts, or as machines for observing the landscape. The projects have in common a provocative and utopian approach. All projects are based on the distortion of a simple geometric figure; each distortion is a device designed to correspond to a panoramic view from the interior space, framing nature and allowing for contemplation of the landscape. This characteristic underlines the iconography of the projects: the dichotomy between nature and edifice. The villas, designed between January 2013 and April 2014, are presented here with a selection of drawings: two sketches, a diagram of the operational distortion, floor plans, elevations, sections, and renders. Given their conceptual nature, these projects occupy the border between case study and divertissement.



LAD Laboratorio di Architettura e Design è uno studio di Architettura fondato a Roma nel 2006 da Simone Lanaro e Francesco Napolitano. L'attività professionale riguarda tutti i livelli della progettazione architettonica, del design industriale e degli interni. L'obiettivo costante dello studio è la ricerca di una elevata qualità nella progettazione a tutte le scale, finalizzata a trovare il giusto equilibrio tra la realizzazione ed il piano economico di investimento. L'esperienza legata alla progettazione e alla costruzione di svariati edifici di elevata qualità architettonica consente allo studio di unire un profondo valore concettuale nell'ideazione dell'architettura ad una grande sapienza tecnica nella sua realizzazione. Le opere dello studio sono pubblicate in alcune delle maggiori riviste italiane dedicate all'architettura.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의 러닝 허브

(Learning Hub,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열대기후에 적합한 매력적인 건축 대안,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신개념 교육환경을 제시해

>>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NTU)에 새로운 개념의 건물이 들어섰다. 런던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디자인그룹 헤더윅 스튜디오와 CPG건설턴트가 디자인한 러닝허브는 연면적 14,000㎡에 8층 규모로 약 33,0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의 건물로 계획되었다.

겉으로 볼 때 흡사 옥수수 여러 개를 타원형으로 길게 세워놓은 듯한 건물은 12개의 그룹 강의실과 56개의 그룹 강의실을 내부에 품고 있다. 저마다의 강의실은 중앙의 커다란 아트리움을 향해 열려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넓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반대로 아트리움의 크기는 상부로 향할수록 점차 좁아지며 돌출되고 굴곡진 층별 메스를 통해 요묘한 빛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트리움의 천장을 따라 불규칙하게 흐르는 빛은 내부 곳곳을 밝게 물들이고 있다. 어찌 보면 구름이 등등 떠다니는 듯 하기도 하며, 나무들이 가득 차있는 숲 속에 들어온 듯하다.

대지의 생김새에 따라 타원형으로 배치된 건물은 평면상으로 마치 꽃이 피어나는 형상이며 내부에서 그 연속성을 이어간다. 각각의 강의실은 타원형으로 아트리움을 향해 물려 있으며 복도에서 흔히 강의실 내부가 훤히 바라보인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학습과정이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학생들과 교수들이 만나서 다양한 학문에 관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학교 측의 협력적 학습방식에 대한 열의가 표현된 것이다. 학생들은 새롭게 고안된 신개념의 강의실을 통해 더 상호적인 소규모 학습과 활동적인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유연한 구성 방식의 강의실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더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더 쉽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열린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미래 사업 파트너 혹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공간에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학문들 간의 협력은 더욱 증진되며 나아가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된다.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는 곡면형 패널은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메스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헤더윅 스튜디오측은 복잡한 3차원의 표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효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실리콘 주형을 만들어 구현하였다. 700개의 도면을 통해 정밀하게 설계된 61개의 콘크리트 기둥들은 독특한 높낮이를 포함하며 독창적인 건물의 입면을 형성한다. 이러한 육중한 콘크리트 메스를 통해 표현한 외관 속에는 싱가포르 열대기후의 강한 햇빛을 막아주고자 한 건축가의 사려 깊음이 녹아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건물은 내향성을 추구하며 한껏 38m의 높은 초고로 오픈된 내부의 아트리움은 자연적으로 환기되고 공기 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건물에 적용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학생들을 위한 시원한 학습 환경 덕에 러닝허브는 싱가포르의 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 의해 그린 마크 플래티넘(Green Mark Platinum)을 수여받기도 했다.

준공 이후부터 각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러닝허브는 열대지방에 적합한 매력적인 건축적 대안 찾기와 디지털환경을 기반으로 한 21세기에 맞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새로운 개념의 교육환경을 오롯이 제시한다는 점에서 캠퍼스 시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A

김윤성 편집국장 강선아 · 이해경 기자

Ole Smith Project Leader of Heatherwick Studio Vivien Leong CPG Consultants of Heatherwick Studio 자료 Heatherwick Studio



Heatherwick Studio Established by Thomas Heatherwick in 1994, Heatherwick Studio is recognised for its work in architecture, urban infrastructure, sculpture, design and strategic thinking. Today a team of 170, including architects, designers and makers work from a combined studio and workshop in Kings Cross, London. At the heart of the studio's work is a profound commitment to finding innovative design solutions, with a dedication to artistic thinking and the latent potential of materials and craftsmanship. This is achieved through a working methodology of collaborative rational inquiry, undertaken in a spirit of curiosity and experimentation. In the twenty years of its existence, Heatherwick Studio has worked in many countries, with a wide range of commissioners and in a variety of regulatory environments. Through this experience, the studio has acquired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the design and realisation of unusual project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arge scale. The studio's work includes a number of nationally significant projects for the UK, including the award-winning UK Pavilion at the Shanghai World Expo 2010, the Olympic Cauldron for the London 2012 Olympic Games, and the New Bus for London. Thomas is an Honorary Fellow of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Victoria & Albert Museum; and has been awarded Honorary Doctorates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University of Dundee, University of Brighton, Sheffield Hallam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Manchester. He has won the Prince Philip Designers Prize, and, in 2004, was the youngest practitioner to be appointed a Royal Designer for Industry. In 2010, Thomas was awarded the RIBA's Lubetkin Prize and the London Design Medal in recognition of his outstanding contribution to design. In 2013 Thomas was awarded a CBE for his services to the design industry.

